

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중심으로*

Alternative ‘Doing Home’ Practices of
Single Young Korean Women through ‘Living Together’

신유진**

본 논문은 20대, 30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촘촘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혼여성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기회를 보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이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내는지 살펴본다.

주요어: 비혼, 함께살기(living together), 청년 여성, 집 꾸리기(doing home), 대안 주거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요약·수정·발전시킨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졸업(yoojin3995@naver.com).

1. 서론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생애 전망으로 비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함께살기(living together)실천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미혼’과 구분하여 ‘비혼’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된 이래 비혼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어 왔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비혼이 이해되고 말해지는 방식도 다양했는데, 이러한 비혼 담론은 2010년 중반 이후로 또 한 번 새 물결을 맞이한다. ‘영영 페미’ 등으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스트 주체들이 탄생하며 비혼이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이다. ‘비혼’은 지금/여기에서 결혼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청년 여성들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움직임이며 또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담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애 전망에 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여성, 정치적인 이유로 비혼을 선택한 여성 등을 통틀어 경제적 여건과는 무관하게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생애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괄적으로 비혼여성으로 칭하며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을 경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혼 남성 집단과는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여건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비혼을 택하기에 자발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²⁾

1) 시기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미완의 상태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미혼’과는 다르게 ‘비혼’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여성주의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김지유, 2018).

2) 202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미혼 여성 중 22.4%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2.4%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도 10%

경제 불평등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배경에서 결혼제도 안으로 포섭되기를 거부하거나 결혼하지 않길 택한 비혼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가 서로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자는 취지의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비혼여성들의 네트워크도 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주거, 경제, 사회적 고민을 나누며 비혼 주체로서 살아갈 방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공동체 내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된 이야기가 담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황선우, 2019)가 끝났던 선풍적인 인기는 대안적 삶, 대안적 집 꾸리기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한다.

이때 제도적·상징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시공간성³⁾은 비혼여성들이 쉽게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비혼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집 꾸리기’는 쉽게 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되기 어려운 것’으로 위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규범 바깥의 이들을 ‘정상성’ 안으로 재편입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개별 주거공간의 설계부터 주거의 공급, 제도적 지원과 이를 통한 도시의 직조방식에 이르기까지 재생산적 시간성은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 ‘중산층’을 골자로 이루어져 온 한국의 주거 규범(하성규, 2000)은 더욱더 비혼여성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을 얻기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나 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 40.8%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이다(통계청, 2020)(김지유·조희선, 2018 참조).

- 3) “개인의 생애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순차적·위계적인 여러 단계로 나누고(생애 과정의 시간화), 이를 특정한 주거 형태와 매치시키며(생애 과정의 공간화) 각 단계에서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생애 과정을 생산하고, 이를 승인하는 규범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담론 체계”(정민우·이나영, 2011: 113).

집이 대부분 가족생활의 근거지로 이해되고 설계·공급될 때 비혼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주거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 내는지 살펴보며 함께 살기의 의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비혼여성 주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성인 비혼 남녀의 유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장기적 비혼여성의 주거에 관한 연구, '1인 가구', '청년 여성 주거', '공동체 주택' 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조금씩 서로 중첩되는 의미로서 '비혼', '청년', '1인 가구'라는 범주를 다룬다.

우선 성인 비혼 남녀의 비혼 유형을 분류하고 비혼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로 김지유·조희선(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혼 관련 연구에서 자발형, 비자발형으로만 유형화하는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비혼의 유형을 '지속적 비자발형', '지속적 자발형', '변화된 자발형', '변화된 비자발형'으로 나누었다. 특히 남성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확보될 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비혼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장기적 비혼여성의 생애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순남(2016)은 '결혼을 중심으로 장기적 삶을 계획하지 않는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범주화하여 '비혼'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젠더와 친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송제숙(2016)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비혼여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정동을 공유하는 비혼여성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불안한 주거상황 등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를 통해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비혼여성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거 점유 형태로서 임대주택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 부분 송제숙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송제숙은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지만 공간적 독립을 바라는 비혼여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와 다른 지점이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2010년 중반 페미니즘의 재부상을 기점으로 확산된 비혼 담론의 자장 안에 위치하는 본 연구와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에 관한 연구도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백미록(2015)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20대~30대 여성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비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권민지(2018)는 주거불안계급의 개념을 이용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며 이들이 어떻게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양상과 함께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공간전략을 조명한다. 이들 연구는 대안적 실천으로서의 함께살기를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현재의 불안한 비혼여성들의 주거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민우·이나영(2011)은 20대~30대 비혼 남성과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통해 독립의 의미를 분석하며 규범적 시공간성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의 출현과 함께 비혼 담론과 함께살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려해 김지유·조희선(2018)의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혼을 택한 지속적 자발형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에 관한 연구들의 뒤를 잇되 특히 ‘함께’ 살기를 택한 이들의 경험에 주목해 이들의 실천이 규범적 시공간성과 부딪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며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비혼

여성들이 대안적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비혼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1인 가구가 아닌 함께 사는 비혼여성들을 다루면서도 어느 특정한 형태의 주거 형태(세어하우스나 코하우징, 공동체 주거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 한 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비혼여성들의 실천을 친밀성의 형태와 주거공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그간 비혼여성들에 관한 주거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1인 가구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공동의 주거를 다루는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거 양식의 대안에 초점을 맞추어 세어하우스나 코하우징 등의 거주 형태를 다루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⁴⁾ 대안적 비혼 공동체에 대해 다루는 경우에는 주거공간보다 대안적 친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⁵⁾ 끈끈한 대안적 공동체를 반드시 형성하지 않더라도, 공동 주거에 적합한 특정한 양식의 주거공간에서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다양한 이유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비혼여성들은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투는 비혼이 ‘1인 가구’ 대 ‘대안적 공동체/주거’의 구도 안에서 이해될 때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집’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만들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집(house)을 집(home)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어떤 비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아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며 집을 다르게 만들어간다. 그렇기에 현재의 주거 구조가 가족제도의 물리적

4) 예를 들어 최서아(2018)는 다양한 요인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그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 현상, 기러기 가족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꼽으며 늘어나는 1인·2인 가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어하우스 디자인을 연구했다.

5) 김혜경(2017)의 경우 비혼 청년층의 공동 주거 사례를 통해 이들이 이루는 대안적 친밀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점이 있으나 주거공간보다는 친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현현일 때, 그리고 ‘가족’이 집의 의미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비혼여성들의 대안적 ‘공동체’도 대안적 ‘주거’도 아닌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를 다루기로 한 것은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비혼 가구는 쉽사리 ‘1인 가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비혼 가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함께살기는 또한 고정불변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끊임없이 제도, 주거환경, 사회 규범 등과 갈등을 겪고 협상,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비혼이라는 공통의 생애 전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⁶⁾ 비혼 담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비추어 봤을 때 특히 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혼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혼 현상을 주도하는 인구가 주로 여성들인 점, 비혼 남성들이 많은 경우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을 때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달리 비혼여성들은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것과 무관하게 비혼 생애를 생각하고 있음(김지유·조희선, 2018)을 고려해 연구 대상을 설정했다. 즉 현재의 대안적 주거 형태가 결혼 전에 잠시 거쳐 갈 임시적인 곳이 아니며 보다 자발적으로 비혼 생애를 그리며 타인과 함께 ‘집’을 꾸려가고자 하는 비혼여성들이 주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공

6)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살기’를 도모하는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민간 세어하우스에서 잠시 거주하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혼자 살고자 하는 이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주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가구유형	주거 형태	거주 형태	주거비용(원)*	직업	월 소득 (만 원)
민영	26	4인	쓰리룸	임차(월세)	월세 40만	정규직 기술직	180~200
지원	28	2인	쓰리룸	임차(월세)	2000만/75만	파트타임 사무직	80~120
은주	34	3인	쓰리룸 아파트	자가	약 9억	약사, 대학원생	500~600
보라	31	3인	쓰리룸	임차(월세)	7500만/87.5만	프리랜서 집필노동자	약 100
정은	27	2인	투룸	임차(월세)	3000만/70만	정규직 연구원	약 300
현정	25	2인	투룸	임차(월세)	3000만/70만	대학생, 파트타임	약 100
소현	29	4인	쓰리룸 공동체주택	임차(전세)	월 분담금 26만	협동조합 대표	약 160
수민	31	3.5인**	투룸	임차(월세)	1000만/50만 (네 명이 분담)	프리랜서	약 200
주영	23	3.5인	투룸	임차(월세)	1000만/50만 (네 명이 분담)	무직	없음

* 주거비용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로 나타냈으며 보증금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월세만 나타낸 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 설명 부분에서 후술했다.

** 세 명이 상주하고, 한 명은 3~4일 정도를 해당 집에 머무는 형태. 3.5인이라는 표현은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따른 것.

개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모집했다. 심층 면접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총 9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진행했다.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원가족으로부터의 주거 독립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공간에 관한 것들을 질문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표 1>과 같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2019년 인터뷰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졸 취업자부터 대학생, 학사,

석사, 대학원 재학생까지 비교적 다양했으며 고용 형태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서부터 전문직 정규직인 경우도 있었다. 주거 점유 형태의 경우에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세와 자가가 각각 한 경우씩 있었다. 주거 형태는 투룸, 쓰리룸의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뿐이었다. 가구 유형은 2인, 3인, 4인으로 다양했으며 비교적 고른 비율로 있었다.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원래 알던 지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와 세어하우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경우, 그리고 공동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에서 임차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인터뷰이들 중 은주는 자가 아파트에 두 명의 동거인과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라는 폴리아모리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애인과 거주하고 있었다. 정은과 현정, 그리고 수민과 주영은 각각 동거인 관계이다. 소현은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대표인 동시에 공동체 주택 입주자였다.

2. 이론적 배경

1) 규범적 시공간성과 한국의 주거 규범

근대적 시공간 속에서 개인들의 생애는 규범적으로 구획된다. 정민우 등은 이러한 생애과정과 공간의 규범적 구획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해 할버스타(Judith Halberstam)이 제시한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 개념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해 ‘규범적 시공간성(normative spatio-tempora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정민우·이나영, 2011). 시간과 공간에 관한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헤게모니적 구성인 재생산적 시간성은 “출산 가능한 몸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시계, 부르주아적 체통의 규

칙, 그리고 기혼자들을 위한 일정에 의해 지배된다”(정민우·이나영, 2011: 11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이는 ‘가족, 이성애, 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때 재생산적 시간성 논리의 담론적 효과는 출생에서 교육,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생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life course)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정민우·이나영, 2011). 정민우 등은 이러한 논의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시켜 규범적 시공간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제안한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개인의 생애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순차적·위계적인 여러 단계로 나누고(생애과정의 시간화), 이를 특정한 주거 형태와 매치시키며(생애과정의 공간화), 각 단계에서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적절한 생애 과정을 생산하고, 이를 승인하는 규범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킨다(정민우·이나영, 2011: 114).

생애과정을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정상성’ 안에 위치시키는 담론 체계인 규범적 시공간성은 제도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구 집단에 어떤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을 ‘정상성’의 트랙에 재편입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차원의 효과는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정상 가족, 그리고 정상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단계에 있는 이들(신혼부부)은 비교적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주거 지원 정책에 접근하기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또한 상징적 차원에서 ‘정상적’ 생애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걸맞은 공간을 얻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상징체계이자 담론적 현실로서 작동한다. ‘가족-이성애-재생산’으로 구성되는 제도하에서 이에 부합하는 영토, 즉 주거공간을 점유하는 이들은 시민의 범주 안으로 안전히 포섭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은 ‘재현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해석 불가능한 존재’로 구획되며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민우·이나영, 2011: 115).

이 같은 규범적 시공간성은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나영정(2012)은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가족제도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현재의 주거 정책이 계층 상승의 욕망과 더불어 특정한 생애주기와 정상가족 규범이 맞물려 진행되어 왔음을 지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계급 재생산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현장”인 규범적인 집으로 위치하며 이것이 해체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정상가족을 근거로 하는 주거 형태 이외의 주거는 잔여적인 형태로 한정되어 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맞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 결혼하고가 같이 패키지로 뭉쳐 있는 것 같아요”⁷⁾라는 한 여성 작가의 표현은 이런 결혼가족 중심의 주거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토연구원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에서는 “1인 청년 → 2인 커플, 결혼 → 3인 유자녀 → 4인 가구로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확대”(박미선, 2018: 8)로 이어지는 도식을 제시한다. 이 주거지원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가족제도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4인 가구’라는 이른바 ‘정상 가족’, 혹은 ‘표준 가족’의 형태로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시공간성은 한국의 특수한 주거 규범과 맞물려서도 작동한다. 한국의 주거 규범을 주택 형태(types)와 주택점유방식(tenure), 주택 재고(양과 질), 그리고 주거권(housing rights)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7) “결혼? 비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인터뷰 영상, 2019년 3월 22일, <https://tv.naver.com/v/5792036>

접근한 하성규(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 규범은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 ‘중산층’을 골자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 서울의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다량 공급을 주도했고, 1990년대가 채 되기 전에 도시 전체에 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었다. 주택의 장소와 형태, 그리고 생활 방식은 사회 계층을 확인하는 요소로서 작동하며 고층의 아파트는 그중에서도 도시 중산층을 의미하는 가장 함축적·상징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7년에는 서울 전체 주택의 56%가 넘는 수가 아파트로 구성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 ‘아파트’를 얻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경제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큰 목표가 된다.

대단지 아파트가 이상적인 가족 주거의 의미를 독점하며 서울과 서울 주변지역 신도시의 경관을 형성해가는 동안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실중심형’ 평면은 보편적인 평면형으로 자리 잡아 갔다(서원기, 2009). 이로써 아파트는 검증된 평면이자 상품으로서 구성되어 “삶과 가장 밀접한 건축이면서도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것이 되었다(권은경, 2015: 22에서 재인용). 상품성이 검증된 아파트 평면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평면에도 두루 적용되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다세대주택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다가구주택이 도입되어 보급되었다. 이는 신도시 개발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노태우 정권의 200만 호 주택건설 목표를 민간 부분에서 보충하기 위해 시가지 내의 가용토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고자 탄생한 주택정책으로, 대도시의 주택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주택의 과밀,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재해에 대한 취약성 및 기존 주거공동체의 와해 등 거주자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진희선·전남일, 2001).

주택 공급의 흐름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급증하는 1인·2인 가구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5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건설 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주거공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수익성이 확인되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늘어나는 소형 가구의 수요에 맞추어 주택의 발 빠른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또 한 번 투자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소형주택이 보급되는 현상을 낳았고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된다(권은경, 2015: 47). 공급 기준 완화와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 초래한 결과이다(조민정, 2011: 157).

주거의 양적인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주거공급 정책은 양분되고 대립하는 주거구조 속에서 주거사다리의 위층에 있는 아파트로 ‘오르길’ 열망하는 구조를 직조한다. 주거정책이 인구정책이나 경제부양 정책으로 수단화된 것, 주거공간이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어 설계·분배된 것, 그리고 “부동산이 계급의 세대적 재생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원가족의 도움 없이 살만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사회라는 것”(나영정, 2012)과 맞물려, 결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획득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구획되어 배치된다.

2) 집 꾸리기(doing home)

집은 가정이라는 개념과 중첩되곤 한다. 가깝고 사적이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혹은 이런 관계가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써 물리적 주거공간(house)은 비로소 집(home)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Bowlby, Gregory, and McKie, 1997: 344). 즉, 전통적으로 집은 가족(family)과 물리적인 주거공간이 결부된 의미였다.

볼비 등은 집과 가정의 연계,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복잡성에 대해 주

목하기 위해 권력과 가부장제, 집안일과 돌봄, 집 내부의 공간과 경계들이라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통해 전통적/규범적 집의 속성에 대해 논한다(Bowlby, Gregory and McKie, 1997). 집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자율성,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권력 관계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인 것이다(White, 2002). 규범적인 집은 가부장제,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곳이다. 이때 규범적 집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은 여성에게는 노동의 장소, 남성에게는 휴식의 장소가 되는 등 불균등하고 성별화된 방식으로 존재한다(McDowell, 1983; McDowell and Massey, 1984).

주거공간은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를 공간에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조직되고 설계된다(Bowlby, Gregory and McKie, 1997: 346에서 재인용). 불비 등에 따르면 육아, 가사노동, 성관계 등의 일상적 행동들을 포함하는 공간의 이용 방식은 젠더 행하기와 집 꾸리기 둘 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용인되는 성 역할에 도전하는 것은 종종 공간 규범의 위반을 수반하는데,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 여성이 공구 창고에 들어가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불비 등에 따르면 이는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위반함과 동시에 성별화된 집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다.

불비 등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West and Zimmerman, 1987) 개념을 집에 대한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이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내재화하고 행함으로써 유지·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보는 젠더 행하기의 개념은 집의 안팎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별화된 행동 양식들이 집의 사회적·문화적·물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 꾸리기(doing home)'를 이처럼 집 내부에서 친밀성과 관계 맺음, 양육과 돌봄을 포함하는 젠더 행하기를 통해 주거공간(house)을 비로소 집(home)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넘어서 어디서, 누

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집을 구성해 나가는 행위들을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비혼과 함께살기(living together)

한국 청년 여성들의 비혼 결심은 때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선택’의 차원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하지 않았을 때는 ‘미성숙한 것’, ‘미완성의 것’,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남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 또는 ‘이기적인 것’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골드미스’라고 하는 아주 협소한 방식에 한해서만 비교적 안전하게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했을 경우에는 임금 노동과 무임금 돌봄 노동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저가부장제’의 굴레에 빠지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모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여기에서의 한국 청년 여성들의 비혼 선언은 결혼이 하지 않아도, 해도, 하기에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한 데서 발발되는 것이다. 이때 활발한 비혼 담론은 결혼-가족제도와 규범적 이성애 각본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러한 규범적 영역 바깥의 선택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기능한다. 더불어 비혼여성들의 정치화 움직임은 성별화된 역할로서 개인들을 환원시키는 기존의 이성애 각본,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탈피하여 자신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 맺음 방식, 그리고 생활양식을 만들어나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상징적 차원에서의 작동, 그리고 불균형한 고용시장 등은 비혼여성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비혼여성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은 단지 ‘그럭저럭 괜찮은’ 주거공간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 그치지 않는

다. 1인을 위한 주거가 주로 임시적이고 협소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공-사의 근대적 구획으로 가족과 공적 교류 이외의 사회적 교류들이 정형화되고 협소해지게 하는 것은 이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고립’, ‘고독’을 함께 떠올리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불안은 비혼여성들이 온·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을 형성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혼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들이 특정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러한 실천들은 때로 ‘대안 가족’ 또는 ‘셰어하우스’, ‘공동체 주거’ 등 단편적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차원에서의 명명되지 않은 실천들이 일어나고, 또 현실과 촘촘하게 부딪히면서 한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이루어진다.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주거·인적 상황들과 협상·조정해 나가며 서로 다른 구성의 ‘집’을 꾸려가는 이들의 유동하는 행위성을 드러내 줄 용어가 필요했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living together’의 번역어로서, 그리고 ‘반달’의 함께/살기⁸⁾를 참고하여 ‘함께’의 주거적 측면에 보다 집중하는 용어로서 ‘함께 살기(living together)’⁹⁾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8) 경서·초롱, “돈 없고 집 없고 가족 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일다》, 2019년 6월 1일 자, <https://blogs.ildaro.com/3571>(검색일: 2019년 10월 9일).

비혼퀴어여성 함께/살기 모임 반달은 ‘페미니즘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는 비혼 청년들이 모여 주거/생활공동체 혹은 그보다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반달은 이러한 고민점을 ‘함께/살기’라는 표현으로 압축하는데, ‘함께’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라면 ‘살기’는 주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9) 맞춤형상 ‘함께 살기’로 띄워 쓰는 것이 맞으나, 본문에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여성들이 함께 살아가며 보여주는 대안적인 집꾸리기 방식을 새롭게 지칭하고자 하였기에 ‘함께살기’라고 붙인 특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스르는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으로 위치한다. 다시 말해 함께살기는 비혼여성들과 이들의 동료들이 ①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서 ② 주거공간에 느슨하거나 촘촘하게 모여 ③ 다종다양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함께살기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데, 함께살기가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궁여지책으로서 촉발되는 측면도 있으나, 선택 가능한 결혼제도 밖의 외부를 상상 가능하게 하고 늘려나가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1가족 1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구조와 주거환경에 문제 제기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상적이기만 한 대안도, 단순한 궁여지책도 아닌 함께살기는 비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도시공간과 협상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효과도 낳는 현실의 다양한 실천들로 자리한다.

3. 자기만의 방을 넘어 함께사는 집

1) 독립과 ‘방 같은’ 집

‘자기만의 방’은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제시했던 공간적 조건이다(울프, 2006).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방’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타지에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혼하지 않고 1인 가구로 독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백미록, 2015;

이를 나타내고자 했음을 밝힌다.

권민지, 2018). ‘독립’은 언제나 성별화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주거는 온전한 독립이라기보다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개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비혼 생애의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방 같은’ 공간을 넘어서 ‘집다운’ 집은 비혼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넘어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과 따로 살게 된 계기는 많은 경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고향에서 나오게 되면서였다. 대도시에 교육기관과 문화인프라,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결혼 전의 여성들이 도시로 교육, 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근거리로의 주거 독립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것일 때가 많다. 어떤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건 연구 참여자들은 젠더화된 규범이 작동하는 집, 그리고 가족들의 감시망이 있는 가족의 집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을 얻어 거주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원가족과 독립해 살게 된 비혼여성들은 하위 주거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집 같지 않음’을 감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타파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무기력증과 우울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유를 모른 채 무기력함, 우울 등을 경험한 이들은 ① 더 나은 주거공간의 경험, 혹은 ②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을 경험하며 이전의 좁은 공간에서 느끼던 부정적 감정들의 원인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곳을 혼자의, 비좁은, 고립된, 외로운 거주 공간으로서 ‘집 같지 않은’ 공간, 즉 ‘방 같은’ 곳으로 의미화했

<표 2> ‘방 같은 집’과 대비되는 ‘집다운 집’의 속성

방 같은 집	집다운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 사생활을 지킬 수 없는 •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 건강을 해치는 • 정주 불가능한, 떠도는 • 안전하지 않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 건강을 해치지 않는 • 정주 가능한 • 안전한 •

다. 이때 ‘집다운’을 말하는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대개 ‘방 같은’ 곳과 대비되는 곳으로서 ① 일상적으로, 또는 이벤트성으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 ②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 ③ 자신의 정체성 확인이 가능한 곳, ④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곳, ⑤ 정주 가능한 곳, ⑥ 안전한 곳 등을 의미했다(<표 2>).

연구 참여자들은 집다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함께살기는 방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됨과 동시에 때로는 이전에 상상해 보지 않은 정주 형태를 모색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2) 함께살기의 다양한 유형

집이 전형적인 가족생활과 연결되어 이해될 때 가족생활을 벗어난 함께살기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함께살기 실천은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적법하게 따르지 않은 것으로,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 배치되며 쉽게 재현되지 않거나 특정한 틀 안에서만 재현되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며 함께살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장기적 함께살기를 모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또는 재생산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혹은 집에 누군가가 있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집다움’을 느끼기 위해 함께 살기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만의 이유로 다시 흩어지거나 구성원이 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 방법, 혹은 따로 살며 ‘함께’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기도 했다.

지원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서울에 주거를 구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 세어하우스를 선택했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임대수익을 내기 위해 최대한의 인원을 하나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도록 설계되었던 민간 세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은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그렇기에 “탈출”해야 했던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함께살기의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공간이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원은 세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로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실제로 이 경험을 통해 지원은 같은 방을 썼던 네 명 중 세 명의 동거인과 함께 집을 구해 한동안 거주하기도 했고, 지금은 그들 중 한 명과 함께 투룸에서 살고 있었다.

은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족의 간섭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좋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득이 많”다는 것을 느껴 그 이후 함께살기를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소현의 경우에는 비건 지향인으로 생활을 하다 원가족과의 마찰로 인해 집에서 나왔을 때 우연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 하우스에 입주할 기회가 있어 함께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조건이 맞아떨어져 입주하게 된 공동체 주거에서 소현은 함께살기

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협동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함께 살았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신념을 조합원들과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동 거주 of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히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애 전망하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적 주거생활로서 함께살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정은의 경우 오래전부터 룸메이트를 갖길 원했고 ‘반달’이라는 모임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를 찾아 실행에 옮겼다.¹⁰⁾

이처럼 함께살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 이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되기도 하는 반면 기숙사와 같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이들은 주거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주영은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숙사실 배경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불화가 있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나이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된 룸메이트와의 긍정적이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 기숙사라는 곳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이 좀 끔찍하다는 기억을 심어주”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주영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경험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10) 소현과 함께 공동체 주택에 거주했던 한 비혼여성의 인터뷰가 담긴 아래 신문 기사에서도 적극적인 함께살기 기획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예전부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혈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의지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을 꾸린 것이다(홍상지, 2017.7.5)

함께살기는 공간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더 넓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거실과 같이 공간적으로 넓고 공간 이용자들 간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각자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경우도 있었다. 수민은 원래 활동하던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나 여동생과 함께 두 개의 방과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서야 더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은주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공간을 주변의 혼자 거주하는 동료들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수민, 은주의 경우에는 느슨하건 촘촘하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음에도 편하게 모일 만한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좀 더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함께살기는 주로 쉽게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있으며 전형적인 집 꾸리기 방식인 이성애적 결혼이라는 각본을 비껴가기에 상상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안적 거주 방식으로 모색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이렇게 함께사는 집을 이전의 ‘방 같은’ 집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 교류가 가능하고, 초대의 문턱이 낮으며, 안전 비용이 낮고,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집다운’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규범적 시공간성의 영향력과 함께살기의 어려움

(1) 경제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어려움

규범적 시공간성은 상징적·제도적 차원에서 폭넓게 작동하며 그 영향력 아래 함께살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우선 한국의 주거지원 정책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나영정, 2012; <표 3> 참조). 이러한 생애주기의 구분은 철저히 가족-이성애-재생산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에 위치한 다종다양한 관계들을 납작하고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만다. ‘청년’이지만 ‘임시적인’ ‘1인 가구’가 아닌 비이성애적이고 비가족적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살기 위한 주거지원제도를 찾던 소현과 수민의 경험은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공임대 주거지원 사업에서도 비이성애, 비가족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의 친밀성이 비가시화된 영역으로서 존재함을 드러낸다.

자꾸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집이나, 우리가 그 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원룸이거나 투룸,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신혼부부야 아니야, 아니면 혼자 살겠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 내야만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호적에 올려야만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된 다거나, 관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재단해 버리는, 싹둑싹둑 잘라 버리는
……. _ 소현

가족들은 한 사람이 제일 신용 좋은 사람이 대출받아서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명씩 다 대출 심사받아야 되고, 한 명씩 다 계약금 마련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 공동체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세 명씩 묶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인 가구씩 심사를 한 다음에 ‘방을

<표 3>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

구분	특성
가구 형성기	31세: 결혼(평균 초혼 연령: 30.6세), 소득 증가, 출산
가구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40세: 주택 구매(결혼 후 주택 구입: 평균 8.6년 소요) • 40대 초중반: 교육비 증가, 소득 증가, 주택 구입 용자액 증가, 저축 증가
가구 안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50세: 주택의 교체(주택 구입 후 평균 8.5년) • 56세: 퇴직, 자녀 출가, 교육비 부담감소
가구 쇠퇴기	60세 이상: 주거면적 감소, 소득 감소, 가족 축소

출처: 나영정(2012).

고르세요’……. _ 수민

수민과 주영, 성준은 공공이 매입·임대하는 방식의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공동체가 아닌 1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 및 심사 과정, ‘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는 공간 디자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수민이 입주하고자 했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작은 거실을 맞대고 있는 3개의 1인실로 구성된 호가 여럿 계획되어 있었지만 결국 세 방 중 한 방에만 입주자가 있어 두 방은 빈 채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사례는 결국 주택 공급자의 입장에서 1인 가구와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함께살기의 걸림돌이 된다. 비혼여성들에게 함께 살기는 한편으로는 재정을 합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결혼 가정을 꾸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게는 결혼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시 부모 세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비교적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비혼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주거비 지원의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나 규범적 생애 과정에서의 ‘결혼 적령기’를 완전히 지나지 않은 이들에게 결혼은 여전히 ‘부모님이 보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더 더욱 결혼이라는 맥락을 벗어난 주거비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 함께 살다가도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원은 방 같은 공간들을 전전하는 데 지쳐 두 동거인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는 포부를 갖고 있었지만,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던 동거인의 부모님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재정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인터뷰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이 비교적 쉬운 점을 이용해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결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했다고 말한다. 보라와 동거인들은 보라를 중심으로 하는 두 명의 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 친밀관계의 규범 밖에 있기에 기존의 결혼제도 안에 안전하게 포섭될 수 없다. 하지만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공간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결혼은 주거비 획득을 위해 이용을 마지못해 고려해보게 되는, 그러나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것은 아닌 최후의 보루처럼 언급되기도 했다.

장난스럽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신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인 A와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혹 더 필요하다면 동거인 B와 제가 혼인신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기도 나뉘요. 정말 필요 하다면 제도를 그런 식으로 보라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_ 보라

그러나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안전하게 편입되겠다는 다짐으로

서 말하는 것이기보다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제도의 이점만은 취하고 싶다’는 역설적이고 자조적인 농담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대한 이들의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대화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주거를 얻기 어렵지만 정작 다자 연애라고 하는 비규범적 형태의 관계에 있기에, 그리고 결혼에 따르는 규범적인 역할들을 거부하고 있는 비혼 페미니스트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오직 ‘서류상’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규범적 제도 안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는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결혼이 곧 이성애의 이상적이고 완결적인 안착지이며 이는 곧 가족의 결성과 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연결고리를 불완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2) 공간적 차원에서의 어려움

주택 근대화 이전 양반 주택 구조에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공간으로서 침실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전남일 외, 2009). 주거공간이 근대화되면서 ‘안방’, ‘부부 침실’, ‘마스터룸’이라는 이름 등으로 불리게 되는 이 공간은 점점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사적이고 내밀한 이성애적 친밀성을 내포하는 부부 침실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방은 주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위치상으로도 가장 주요한 지위, 즉 햇빛이 가장 잘 들고 면적도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러한 가구의 평면 구성은 생애주기의 시간적 구분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결혼을 통해 가구가 형성되는 ‘가구 형성기’에 안방 공간은 이성애와 재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위치한다.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가구 성장기’에는 안방, 거실과 더불어 자녀들을 위한 방이 있는, 더 많은 방과 넓은 공간이 있는 평면형이 요구

되고, 자녀들이 출가하는 ‘가구 안정기’에는 보다 적은 방 개수와 더 좁은 공간이 용인된다. 즉 생애주기별로 안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그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적절한 평면적 구성이 규범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주거공간이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전형화되어 공급될 때 함께살기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도전적인 일이다. 근대적 핵가족 생활을 표준으로 공급되는 주거공간은 다른 형태의 친밀성 양식을 가진 함께살기를 위한 공간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며칠을 돌아다녀도 일단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투룸 이상의 빌라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 [원하는] 조건을 내면 터무니없이 비싼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너무 방이 작거나 거실이 너무 작거나……. 그래서 따로 살아야 하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_ **보라**

투룸 알아볼 때도 방 크기가 같이 안 나오고 거의 신혼부부 중심으로 나와서 2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가지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큰 방 침실로 쓸 거, 옷 방으로 쓸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한 명이 월세를 적게 낸다 그래도 도저히 쓸 수 있는 방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_ **지원**

창이 안방에 더 좋게 설계가 되니까, 가장 작은 방은 또 빛이 잘 안 들거나 바로 옆에 건물이 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 그리고 저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보일러 컨트롤러가 큰 방에 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도 해야 되고, 조심스럽고, 큰 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_ **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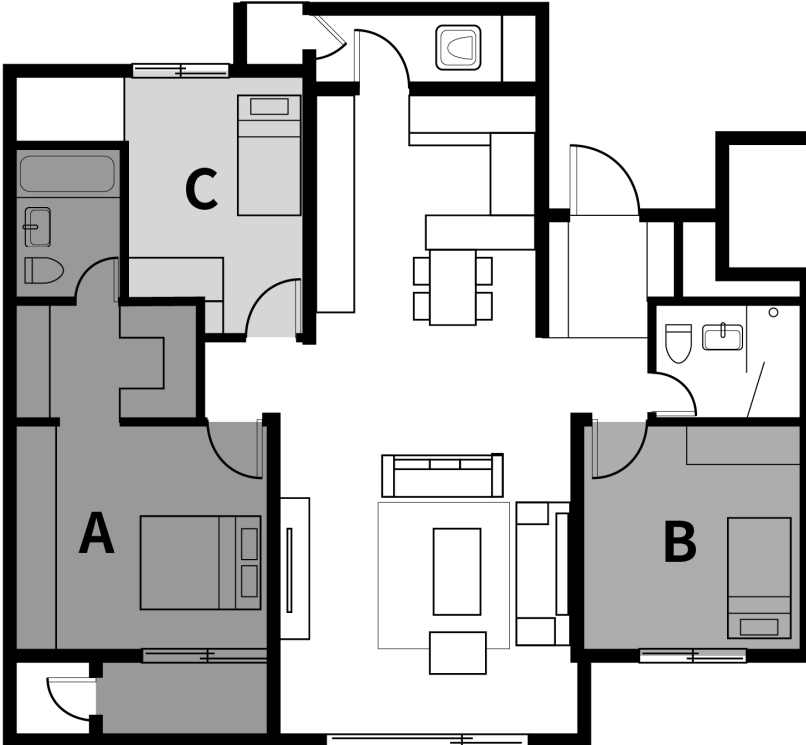
세 명이 함께 살 곳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보라는 방을 구하기가 유

난히 어려워 함께 사는 걸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기까지 했다고 말한다. 지원은 여자 룸메이트와 함께 살 방을 보러 다닐 때 ‘2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서 힘들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보통 거실, 부부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 크기에 따라 월세를 다르게 나눠 내더라도 도저히 방을 나눠 살기가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기획에서는 이처럼 방 사이즈가 비슷한 집을 찾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된다.

소현의 경우 기성품처럼 찍혀 나오는 ‘가족을 상상하고 만드는 집’에서 집 안방이 집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을 전제로 한 투룸, 쓰리룸의 공간은 안방에만 보일러 조절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 불편했고, 햇빛이 안방을 중심으로 드는 것이 싫었다고 말한다. 소현의 말대로 채광이나 집 전체의 주요 컨트롤러가 안방에 집중되는 것 또한 함께살기를 기획하는 비혼여성들이 주거공간을 구하며 마주한 문제 중 하나였다.

비이성애·비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방 공간은 불균형한 공간적 위계를 자아내는 곳으로 다른 요소들을 동원하여 공간 분배의 협상이 필요한 공간이 된다. <그림 1>의 아파트 평면 예시에서 A로 표시된 공간은 흔히 ‘안방’으로 불리는 마스터룸이며 드레스룸과 욕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될 경우 드레스룸과 욕실, 발코니를 모두 포함해 다른 방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넓은 개인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은주네의 경우 이 공간을 한 명이 사용하는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다른 동거인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로 협상했다. 가사 노동 시간을 공간을 분배하는 협상의 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낮았던 한 구성원의 부모님이 보기에 이 구성원이 팔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안방

<그림 1> 아파트 평면도 예시



자료: 아파트 평면형을 그래픽 톨로 직접 재구성(원 출처는 <https://e-seoulapt.co.kr/main.aprt>).

을 내어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즉, 가능한 한 비슷한 크기의 방을 가진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면 비교적 분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안방은 단지 ‘큰 방’으로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배당되는 곳이었다.

(3) 상징적 차원에서의 어려움

함께살기는 규범적 시공간성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집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곧 끊임없는 설명과 변명을 요구받는다. 비혼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할 때뿐 아니라 유일하게 용인된 결혼이라는 규범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한 이성애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일탈적이고 재현되지 않는, 해석 불가능한 영역으로 배치된다.

각 집에서는 이 셋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점점. …… 그래서 다른 명분을 제공해 드리는 편이 더 낫겠다, 그냥. 그 명분 중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잘 먹히는 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또는 자기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치 요즘은.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더라**’ 정도로 넘어가요. …… ‘동료들하고 같이 살아’ 이 말은, 그 어르신들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혼자 사는 거잖아, 결혼 안 한 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세계밖에 없고, ‘아 그래,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그들은 하지 않죠.** 어쨌건 혼자 사는 거지. _ 은주

은주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사는 생활이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혼자 사는” 것, 따라서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념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혼자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축되는 상징체계 안에서 ‘혼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는 오직 이성애 결혼 여부로만 구축된다. 이때 조금이나마 부모 세대의 주변인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력이 좋으며 결혼 대신 일을 택한 독신 여성’이라는 통념에 기대는 것이라 은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정은과 현정의 함께살기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 즉 결혼하기 전의 여성들이 행하는 일시적인 것으

로 이해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주류 담론 속으로 포섭된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직 “결혼 적령기 애들”이 아니기에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방을 구하면서 불편한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반면 30대 중반인 은주는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연령에 속함으로 부동산을 통해 방을 알아볼 때도 결혼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무슨 일 하시길래”, “왜 결혼 안 하시고”)을 마주했다. 반복되는 물음들을 접한 은주는 그 이후 방을 구할 때 최대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4. 다른 방식으로 집 꾸리기: 공간의 변용과 친밀성의 재구성

1) 공간 다르게 쓰기, 다르게 만들기

함께살기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간의 사용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집’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혈연 가족의 성별 역할 분담에 따라 만들어나가는 총체적·집합적 의미로서의 집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해석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이는 기존의 주거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분배해 사용하거나 주거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상상하고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 도시·주거공간의 근대적 변형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던 많은 일은 집 밖으로 재배치되고, 점차 거실 공간은 가족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일상적이기보다 ‘어쩌다 간혹 있는’ 이벤트가 되어갔다(전남일 외, 2009). 부부공간인 안방과 가족 단란의 공간인 거실, 그리고 부차적인 방들로 이루어진, 가족

이성애-재생산 제도의 물리적 현현인 주거공간 내부를 비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공간 구조를 변용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공간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거실 공간을 주변 지역 네트워크나 온라인 기반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은주는 거실 공간을 사업을 위한 회의록을 여는 공간,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혼자 사는 동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구심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보라의 경우에도 거실을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셋이 같이 사는 이유가 단지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을 원했으며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이들은 거실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적절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가족 내 역할에 따라 분배되어 왔던 집의 공간들을 재해석해 변용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수민의 경우 구성원들 모두가 반드시 각자 하나씩 방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대신 사용성에 따라 방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을 구성해 살고 있었다. 안방과 거실 사이의 문을 열어내고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방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두었다. 공간이 생긴 후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인해 주거공간은 더 폭넓은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었고 훨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일상, 비일상적 활동에서 기존의 공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해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의 양식을 만드는 데 노력을 들이기도 한다.

사실 저희가, 집이니까 거실이라고 생각하지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놓고 싶

은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작업실, 뭐, 거기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공간이 꼭 거실이라고만 상상되지 않아도. 그냥, 텅 빈 방? 그냥 텅 빈 어떤, 면적? 그래서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좀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 _ 소현

저 같은 경우에는 반달 하우스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반달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자 다른 방을 쓰는 형태로 해서 …… 이제 1층을 커뮤니티, 그냥 카페 같은 거보다는 지역거점 운영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들을, 어젠다를 활성화할 때 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_ 정은

소현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거실이 텔레비전을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니길 바랐다. 지역 도시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새로 지을 임대주택의 거실 공간 구상에 의견을 제안할 기회를 얻은 소현은 거실이 기존의 용도를 버리고 텅 빈 공간으로서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은은 ‘반달’의 모임원들이 각자의 방을 갖고 1층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정은은 현재 룸메이트인 현정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거실도 원래 모임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좌절되었다. 정은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따로 또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싶어 했다.

2)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살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담아낸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황선우, 2019)에서는 개인들이 결합해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형태의 가구원인 자신들을 ‘분자 가족’이라고 칭한다. 분자 가족이라는 표현은 원자들의 화학적 결합물인 분자 개념에 착안해 개개인들을 원자로, 개인들이 만나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분자로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정은’처럼 서로를 배타적이고 유일한 가족처럼 여기길 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저희는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한번 그런 얘기해 봤었는데 그냥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인데 이제 가업도 있는 거지. [약국이] 가업으로 있는 거지. 우리 가족의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업이 있는 거죠. 환자에게 잘하자, 이런 거. _ **은주**

함께 산 지 5개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식구처럼 느껴져요. …… 함께 밥해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해요. 각자 역할도 정했는데, 저는 인테리어와 대외협력 팀장, 동거인 A는 회계 팀장, 동거인 B는 노동 팀장이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 이번 주에 지출이 많으면 다음 주에는 지출을 줄이는 계획도 세우고, 반려동물들 의료비용도 미리 저축하고. 그런 점들이 저에게도 안정감을 줘요. 정말 가족이 된 느낌. _ **보라**

전 누구랑도 그렇게 [질척질척하고 찢득찢득한 관계가] 되고 싶진 않아요. …… 언젠가 그런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묶여 있고 서로밖에 없는 그런 관계 형태를 지향하진 않아요. [친밀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요. …… 애인이 생기면 아마 애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요, 저라면. _ **정은**

연애/결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 대 개인의 친밀관계보다 넓은 우정의 네트워크로서의 친밀공동체¹¹⁾는 그 자체로 대안적 관계 맺기가 되고 있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살기를 통해 다양한 거리와 규모의 친밀공동체들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수민, 주영, 성준은 하나의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긴밀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들은 낭만적 이성애,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친밀관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그러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긴밀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생활공동체는 단순히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공동체’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대답했다.

[주거공동체라고 하기엔] 주거지를 다 같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화 모임이라고 하긴 또 이걸 너무 느슨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찾다가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을 찾은 거거든요. _ 수민

원래부터 있었던 친밀관계 혹은 친밀공동체에 기반한 함께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민영). 결혼하지 않고 자력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획득하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비혼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민영은 함께 “대출을 뺏겨와서” 주거공간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협력적인 주거공동체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끈끈하고 친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1)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2011년), 41권, 347~377쪽.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또 다른 가족’, ‘분자 가족’, ‘생활공동체’, ‘주거공동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관계는 비록 서로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그 의미가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들의 다양한 관계 맺음 방식은 함께살기가 어떤 하나의 고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를 벗어난 개인들이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가족으로 상상되는 보다 사적이고 긴밀한 형태를 띠 수도 있고, 노동의 분담과 나은 주거공간의 영위를 위한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얼마든지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했다. 또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맺음은 주거공간 내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변 인간관계들로 확장되어 더 넓은 공동체가 결속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집이 혈연 가족이라고 하는 내밀한 관계와 접촉되어 이해되는 것에 비해 연구 참여자들은 집과 그에 담기는 관계와 역할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집을 꾸리는 것은 또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집’에서의 역할을 다르게 상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소현은 청년주거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공유 주택을 운영하는 기초를 만드는 데서 자연스럽게 “보통 상상하는 집”과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보통 상상하는 집이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살아보면, 혼자 살더라도 같이 살더라도 엄마

가 없으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는 엄마가 하던 일이었는데, 당연한 건 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을 엄마로 만들어버리지 말자.’ 엄마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흔히 쓰이는 그런 엄마,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을 맡기는, 주 가사 노동자로 누군가를 만들어버리지 말자라는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 같고. _ 소현

근대적 공사 구분에 따른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 노동은 임금을 발생시키고 쉽게 드러나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돌봄 노동(care work)은 이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집안일이나 가사노동을 포함하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매일같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안숙영, 2018: 4에서 재인용)이다. 이러한 돌봄 노동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비가시화되기 쉽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돌봄 노동의 가시화와 사회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던 ‘엄마’라는 존재가 부재할 때에 이 노동이 비로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공동의 주거생활을 하는 구성원 간의 비위계적인 역할의 배분을 고민하며 가려져 있던 노동을 가시화하고 협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집에 내재한 성 역할과 위계, 권력 관계와 거리두기를 하며 동등한 개인들의 합으로서 집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대안적인 집 꾸리기 방식인 함께살기 실천을 살펴보며 이들의 실천이 도시공간과 사회적 제도, 인식과 부딪히는 지

집, 이들이 벌리고자 하는 틈을 살펴보며 다양한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연하지 않은 한국의 도시공간 구조를 살펴보며 변화의 지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권민지(2018)가 그간 젠더 관점이 부재한 채로 다뤄진 주거불안계급에 대한 논의를 청년과 여성이라는 교차점에서 살펴보며 청년 여성들의 공간전략을 조명하면서 이들의 주체성을 보여주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그 논의를 이어 결혼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적극적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혼여성의 주거는 주로 혼자 사는, 임시적 형태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혼여성들 중에서는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도모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이러한 함께살기는 또한 고정불변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끊임없이 제도, 주거환경, 사회 규범 등과 갈등을 겪고 협상과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과정에 있다. 원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결혼을 통하지 않고 새롭게 집을 꾸려나가는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그 내부의 가정(family)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끊임없이 집과 관련된 주체들이 집의 안팎에서 열심히 역할을 만들고 행하고 돌봄으로써 만들어져 가는 것에 가깝다.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를 통한 집꾸리기 행위는 본래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산·공급·사용되어 왔던 '집'의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연결고리들을 분해해 드러내는 데에 있다. 가족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던 공간은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에 장애물이 되고 가족 단란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실 공간은 주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공간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취지는 모든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대안적 생활공간을 쟁취해야 한다거나 이들의 생활 방식이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관계 맺음과 집 꾸리는 방식을 상상하기 쉽게 하는 도

시공간과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공사의 경계를 이어주는 적절한 전이공간이 없을 때 1인 가구들은 더 심각한 고립에 처하기 쉽다. 1인 가구가 곧바로 ‘고립’, ‘외로움’과 등치되지 않을 수 있는 물리적·프로그램적 환경이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 비혼여성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족’이 가지는 헤게모니성을 탈피해 개인들의 유연하고 다양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서 집과 일터의 공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경계를 유연화하며 틈을 파고드는 영역들을 촘촘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모든 함께살기 방식이 타인과 ‘거실’을 맞대고 일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보다 유연한 공동체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함께살기 방식이 발굴되고 상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번의 공동 거주 경험을 통해 거실을 공유하고 살아야만 ‘함께’사는 것이 아니며 같은 건물에서 각자의 도어락을 사용하면서도 ‘함께’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다른 방식의 함께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유 공간을 맞대고 살지 않으면서도 ‘함께’산다는 감각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도시성 내에서 경험되는 비혼여성들의 주거 경험과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주거 경험은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와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도시 환경과 주거공급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원고접수일: 2021.01.31

1차심사완료일: 2021.02.15

1차수정완료일: 2021.05.03

2차심사완료일: 2021.08.02

게재확정일: 2021.08.09

최종원고접수일: 2021.08.23

Abstract

**Alternative ‘Doing Home’ Practices of
Single Young Korean Women through ‘Living Together’**

Yoojin, Sh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how and why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live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constructed by modern public/private division and normative space and time.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es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the status where the term ‘single’ is mai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living alone’ or something ‘temporary’ in policymaking processes or in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of single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more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ot living alone’ and ‘sustainability’ of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Under this binding influence of normative spatio-temporal nature, however, not many options are provided as an appropriate residential space for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Single women have no choice but to strive to widen gap in the normative spatio-temporality, and seek for opportunities to find a new spatiality. While this happens, some women choose to live together rather than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xamine how people who do not live alone but share residential spaces with other people in various ways live outside the borders of standard families, and how they signify ‘home’.

**Keywords: single women, living together, young women, doing home,
alternative housing**

참고문헌

논문, 단행본 및 자료집

- 권민지. 2018. 「'내 집'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65권, 271~301쪽.
- 권은경. 2015.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혼여성 전용 아파트 계획안」.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 김순남. 2016. 「이성에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32》, 32권, 181~217쪽.
- 김지유, 조희선. 2018. 「성인 비혼 남녀의 비혼 유형 관련요인 탐색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권 3호, 208~228쪽.
- 김하나·황선우. 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권 1호, 155~198쪽.
- 나영정. 2012.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월간 복지동향》, 163권, 46~52쪽
- 박미선. 2018.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백미록. 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기. 2010. 「해방이후 거실중심형 주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957~1980년 서울에 건설된 중규모 도시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제숙. 2016.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파주: 동녘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1~32쪽.
- 울프, 버지니아(Virginia Woolf). 2006. 『자기만의 방』. 이미에 옮김. 서울: 민음사.
- 전남일, 양세화, 홍형옥.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파주: 돌베개.
-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89호, 105~145쪽.
-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권, 347~377쪽.
- 조민정. 2011.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거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권, 156~166쪽.
- 줄레조, 발레리(Valerie Gelezeau).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 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길혜연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진희선, 전남일. 2001.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공급의 공과와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1권 2호, 15~18쪽.
- 최서아. 2018.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셰어하우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성규. 2000.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지», 12권 3호, 123~146쪽.

- Bowlby, S., Gregory, S., McKie, L. 1997. ““Doing home”: Patriarchy, caring, and spa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Concepts of Home*, Vol.20, pp.343~350.
- Halberstam, J.,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YU press.
- McDowell, L.,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 pp.59~72.
- McDowell, L., Massey, D., 1984. “A woman’s place.” *Geography Matters*, pp.128~47.
- West, C., Zimmerman, D.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Vol.1, pp.125~151.
- White, Naomi Rosh. 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Home.” *Youth and Society*, Vol.34, No.2, pp.214~231.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경서·초롱. 2019.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일다》, <https://blogs.ildaro.com/3571>(검색일: 2019.9.1).
- 홍상지. 2017.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한 비혼 여성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29708>(검색일: 2019.9.1).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결혼? 비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_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인터뷰 영상, 2019년 3월 22일, <https://tv.naver.com/v/5792036>